오래된 진초록 숲 깃들어 공존하는 제주를 꿈꾼다

기당미술관 생태미술전

회화·설치·미디어 등 7명
1분 1초 숨쉬는 일상 속에
인간 밖 세계와 공존 탐색

서귀포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삼매봉 언덕배기에 자리잡은 기당미술관. 시설을 고치며 새로 낸 통유리창 너머로 한라산이 눈에 들어오는 곳이지만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다. 안개 같은 먼지가 도심을 뒤덮은 날이 적지 않은 탓이다. 미세먼지의 '습격'은 하루하루 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한다. 지구상 생명체들이 얽히고설키며 공존하지 않으면 그 흔한 나날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당미술관이 생태미술을 통해 환경과 자연의 의미를 새겨볼 전시를 마련했다. '바다가 보이는 기당정원'이란 이름의 기획전으로 7명의 작가를 초청해 회화, 설치,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으로 사람과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공간을 빚었다.

해양생명과학을 전공한 과학자인 이승현(피쉬본제주) 작가는 골격염색법을 통해 버려지는 물고기를 예술 작품으로 바꿔놓았다. 김지환 작가는 바다쓰레기를 모아 전시장 안에 쉼터를 꾸몄다.

강술생 작가와 하승연 작가는 협업으로 '유기적인 리듬(Organic Rhythm)'을 탄생시켰다. 성산읍 신천리 해안에서 발견된 원시동물 '예쁜이 해면'에서 모티브를 얻어 실 그물망 형태로 가상의 생명체를 설치했다. 변금윤 작가는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숨쉬는 1분, 1초의 소중함을 나눈다.

홍시야의 '제주, 바라보다 #고래의 평화'.

회화로 돌아온 허문희 작가는 신비로운 '숲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끈다. 홍시야 작가는 제주도에서 맞닥뜨린 마음의 풍경을 담았다.

전시는 7월 28일까지 계속된다. 월요일은 휴관. 문의 064)733-1586.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탐라문화제, 이번엔 시카고로 떠난다

해외로 찾아가는 축제
이달 22일 공연과 전시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탐라문화제가 미국 시카고로 향한다. '2019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사업으로 이달 22일(현지 시각) 시카고 노스 쇼어 센터(North Shore Center)에서 제주빛깔을 품은 공연과 전시를 펼친다.

제주도와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제주예총, 회장 부재호)가 추진하는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는 현지 지역민과 재외도민들에게 제주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다. 2011년 도쿄와 오사카, 2017년 오사카, 2018년 도쿄 등 그동안 일본에서 줄곧 진행해왔다.

네 번째를 맞는 이번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공연은 제주섬의 거친 환경을 일구며 살아온 제주사람들의 일상을 민요, 무용, 대사 등으로 엮는다. '기원의 울림'에서는 '기원의 춤',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무속춤'을 선보인다. '상생의 땅'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견딘 평화로운 제주의 모습을 담았다. 농사일과 제주 해녀, 제주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같은 날 공연장 로비에서는 제주의 풍경과 문화를 담은 사진전, 물허벅과 테왁 체험, 의상 체험 등이 마련된다. 문의 064)753-3287.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일본 공연. 올해는 미국 시카고로 향한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국제예술교류 지원 공모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국제예술교류 지원 사업' 하반기 공모를 벌이고 있다.

이번 공모는 오는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해외 기관·단체 공동협력 예술 활동, 해외에서 개최하는 공연·전시·세미나·레지던스 프로그램·축제 등 교류 참가비용, 항공료 등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nca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문의 064)800-9133.

청년 페미니즘 아카데미

제주여민회가 주최하고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청년 페미니즘 아카데미 6월 강의가 이달 22일과 30일 잇따른다.

이달 22일에는 벤처마루 10층 1001호 세미나실에서 '다양한 가족의 모양을 상상하다'를 주제로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이, 30일에는 오후 2시 제주여민회 교육실에서 '온전히 존재하는 '나'로서 살아가기'에 대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강의한다. 문의 064)756-7261.

스토리 구성 역량 강화 교육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스타트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스토리 구성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달 25~29일 교육에서는 캐릭터 개발과 활용을 위한 캐릭터 연구, 스토리텔링 작법 실습이 예정됐다. 서희정 드라마 작가, 한종경 제주애니메이션협회장이 강의한다. 홈페이지(www.ofjeju.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해 이메일(hado@ofjeju.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4)766-0705.

제주영화제 씨네토크 데이

사단법인 제주영화제는 이달 17일 오후 7시 30분 롯데시네마 제주아라 1관에서 제주영화제 멤버십 회원을 위한 '씨네토크 데이'를 운영한다.

두번째 '씨네토크 데이' 상영작은 미미 레더 감독의 '세상을 바꾼 변호인'.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차별에 맞서는 전사이자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인생의 분수령이 된 '모리츠 사건'을 다룬 영화다. 문의 064)748-0503.

이번주(6월 17~23일) 무대 & 미술

제주 음악 샛별들 싱그런 6월 무대

제주음악협회 신인음악회
임소영 등 9명 선발 공연

제주 음악계의 샛별들이 무대 위에 그려내는 선율에 귀기울여 보자.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가 마련한 2019신인음악회다.

김형삼이 지휘하는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번 공연에는 성악 임소영, 바이올린 서채은, 플루트 현민정, 비올라 부희주, 클라리넷 김슬기, 바이올린 한상훈, 성악 한소영, 바이올린 김진이, 색소폰 성민우가 협연한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9명이 펼쳐놓는 풋풋한 무대다.

<공연>

▶제25회 제주앙상블 준(JUNE) 정기연주회 '음악여정'=6월 18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서커스디랩 이준상의 '레인보우쇼'=6월 19일 오후 7시 동홍동 행정복지센터 2층 동홍아트홀. 760-4685.

▶제22회 제주청소년연극제=제주연극협회 주최로 6월 17~20일 세이레아트센터(오후 2시)와 한라아트홀 다목적홀(오후 5시). 010-9687-0031.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제62회 정기연주회=6월 20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0-2494.

▶제주 천송어린이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6월 20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한영애 모노드라마 '더 굿'=6월 21일 오후 7시 서귀포문화빵데리충전소. 733-5855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11시 금요음악 산책=6월 21일 오전 11시 서귀포예술의전당. 760-2494.

▶카리스앙상블 시리즈VI '모던'=6월 21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제주빅 색소폰 연주단 제9회 정기연주회=6월 2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0-9896-2696.

▶인형극 '선녀와 나무꾼'=6월 22일 오후 2시와 5시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720-8035.

▶조성일밴드 문화공감 콘서트 '사람을 잇는 노래'=6월 22일 오후 5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다방. 010-6281-9918.

▶브라보 빈센트 별이 빛나는 밤에=서귀포예술의전당 개관 5주년 기념 6월 22일 오후 7시. 760-3365.

▶2019 신인음악회=6월 23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4753-4613.

▶새연교 콘서트=8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9시30분. 760-2654.

<전시>

▶김성란 초대전 '서귀포를 아시나요'=6월 18~30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스페이스 예나르 갤러리. 772-4280.

▶광주-제주 수묵화 교류전 '수묵의 상'=6월 20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김종현 사진전=6월 20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하늘빛수채화 정기전=6월 20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김인화 초대전=6월 20일까지 현인갤러리. 747-1500.

▶소암기념관 소장품전 '관조적 사유'=6월 20일까지. 760-3511.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 '99+1'=6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710-4300.

▶천병근-제주, 40년만의 재회=6월 22~8월 11일 소암기념관. 760-3511.

▶제18회 해정 박태준 선생 추모서전=6월 22~27일 문예회관. 710-7633.

▶제23회 제주디자인협회 정기전=6월 22~27일 문예회관. 710-7633.

▶제주해녀의 삶=6월 23일까지 산지천갤러리. 725-1208.

▶이지유 사진전 '동양극장'=6월 23일까지 갤러리카페 다리. 726-2662.

▶이가경 개인전 '엉키고 가려진'=6월 23일까지 아트스페이스씨. 745-3693.

▶빈센트 맥킨도의 '꽃'=6월 23일까지 갤러리노리. 772-1600.

▶제주 자연 2019-공존의 이유=6월 23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 710-7801.

진선희기자